

與 ‘野는 노는 국회’... 법안 조속 상정을 野 ‘MB정권 역주행’ 토론회 열고 성토

2월 임시국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반격하는 한편 'MB정권'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연이어 준비하며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차는 본격적인 2차 입법전쟁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 선점을 위한 신경전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박희태 대표는 12일 서울 마포구 서부중합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 최고 위원 현장회의에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놓고먹는 것"이라고 자조감을 피력하며 '노는 국회' 여론에 불을 지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자청, 일부 조간 보도내용을 거

■ 2차 입법전쟁 앞두고 신경전 치열

론하며 "2월 들어 법안상정 건수가 '제로'라고 한다"면서 "18대 국회 들어 8개월의 임기 가운데 101일이나 허송세월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회에 가면 놓고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매우 많다"며 "지금 야당처럼 놓고 있는 국회가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윤선 대변인도 논평에서 "야당이 소리 높이는 일에 쫓는 힘의 반이라도 법안 처리에 쏟았으면 한다"며 "시간은 흘러가고 일 자리·경제 살리기 법안엔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이 같이 '노는 국회'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은 2월 하순에 본격화될 2차 입법전쟁에서 예상되는 민주당의 입법 저지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우선 한나라당의 '노는 국회' 공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서갑원 수석 원내부대표는 "노는 국회라거나 민주당의 논의 거부로 상임위가 마비상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성식 원내 대변인도 "임시국회 개최 이후 총 5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고 29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반박한 뒤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MB 악법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노는 국회'라는 생트집을 잡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입법전쟁에 유리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 'MB정권 역주행 1년'을 주제로 연세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숨

막히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MB정권의 비민주성을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어 13일 교육, 16일 경제, 17일 인사, 18일 통일, 23일 복지·노동, 23일 여성 분야의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키로 했다.

또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3당과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연대와 공동으로 12일 경제법안, 17일 언론관계법안, 19일 민주주의법안 등 임시국회 쟁점법안 저지 결의를 다지기 위한 별도 토론회도 갖는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음식점에서 국회 상임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요구가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인데 상임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자"며 "2월에도 상임위가 제대로 안 된다면 3월에 국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李대통령 메시지’ 전달 가능성

■ 이재오 - 정두언 무슨 얘기 나눴나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회동을 놓고 정치권내 해석이 무성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이들 두 사람이 만난 것 자체만으로 정치적 무게가 실릴 뿐더러 이들의 회동이 지난 6일 이 대통령과 정 의원의 독대 이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을 '메시지'로 한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간접 대화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의 대외 공세와 친박 세력의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려면 이 전 의원의 귀국을 계기로 친이계가 대동단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12일 "지금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당과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정 의원이 이런 이 대통령의 의중을 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측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정 의원의 독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베이징 회동은 연결지을 수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주장이 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정 의원이 이 전 의원의 귀국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다는 것은 확대해석된 것 같다"며 "정 의원의 중국 방문은 개인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중국 방문은 오래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것이고, 이 대통령을 찾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일"이라며 있던 회동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 전 의원의 귀국을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부정적 분위기도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귀국 후) 이 전 의원이 안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키로

당정, 법 개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살인·강도·강간·납치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유전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제1정책조정위원 장윤석 위원장, 박민식 부위원장과 법무부 이귀남 차관,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 경찰청 이길범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 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장 위원장은 회의 뒤 국회 정문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제주도 여교사 살해사건 등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와 행정부는 협의를 거쳐 유전자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른바 올해 안에 유전자은행이 설립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세부 규칙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자유선진당 권선욱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김효석, 박영선 의원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본 회의 도중 인사청문 진행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김효석, 박영선 의원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본 회의 도중 인사청문 진행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방정가

북구의장 불신임안 가결

○광주 북구의회는 12일 제1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최은초(64)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불신임안 투표에는 재직의원 20명 가운데 17명이 찬성했으며 이 중 13명이 찬성했고 2명은 반대, 기권과 무효가 각각 1표씩이었다.

이로써 최 의장은 지난해 7월3일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지 약 7개월 만에 동료 의원들에 의해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북구의회는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 시기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북구의회는 의장단이 최 의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종용했으나 최 의장이 사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자 진보신당 이승희 의원의 발의로 불신임안을 상정, 가결했다.

하지만 구속된 최 의장이 불신임안 가결에 반발해 법원에 구제 신청을 할 경우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등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 도의원 예비후보 6명

○4·29 재보궐선거 민주당 예비후보자 접수 결과, 장흥 2선거구(관산·대덕·용산·안양·회진) 전남도의회에 총 6명이 신청서를 냈다.

신청자는 김광준(55·장흥군의원), 김기주(60·한국농어촌공사 전국노동조합위원장), 김성(50·전 전남도의원), 위 등(45·장흥군 신채장애인후원회장), 이승희(56·주)푸른레미콘 대표이사, 진재국(58·전 장흥 관산읍장)씨 등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암 라선거구(군서·서호·학산·미암면) 기초의원에는 김연일(45·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업체협의회장), 김택현(61·주)한국건설재해예방 전문이사, 최병찬(47·군서농협 이사) 씨 등 3명이 신청했다.

광주 서구 다선거구(화정3·4동, 풍암동) 기초의원에는 김영선(46·김영진 국회의원 보좌관), 고경애(49·민주당 광주 서구을 여성위원장), 김영철(41·부위원장), 이동춘(45·해병대전우회 광주시연합회 수석부회장) 씨 등 4명이 접수를 마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원세훈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보위

국회 정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원세훈 국가정보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적격성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정보위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고, 검증항목에 대한 각 당의 견해를 보고서에 명시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이철우, 민주

당 박영선 의원이 밝혔다. 원 내정자의 자질과 관련, 한나라당은 원 내정자의 업무추진력, 조정능력 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외교·안보·남북문제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정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 개혁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변화와 개혁의지를 갖췄다고 적한 판정을 내렸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정치정보 수집 필요성을 언급한 점 등을 들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2010학년도 대수능 재수 정규종합반 모집

수능 최우수 드림팀 강사진 / 셔틀버스 운행 / 저녁 11:20분까지 의무 자율학습(일요일은 격주로 의무 자율학습) / 철저한 성적관리

인문계열 모집반

- 서울대+경찰대반(소수정원제)
- 교육대+연고대+사관학교반
- 전남대반

(월 수강료:47만5천원(월 10교시+토요일5교시 월 26일 수업))

자연계열 모집반

- 의치한대의대반(소수정원제)
- 교육대+연고대+사관학교반
- 전남대반



개강

2월반 2월16일(월)

3월반 3월 3일(화)

★ 명예로운 학생 ★

- 재수생 전체수석 인문계 표준점수 718점 박 00군 획득
- 광주 일등학원 자연계 신동일 군 (연세대 치대합격(20명 모집)/강릉대치대/단국대 치대 합격)

www.kjildeung.com

찾아오시는 길 : 전남여고 후문과 동부경찰서 사이

NAVER | 광주일등학원 | 검색!

(062)227~2588(대)

광주 일등학원 227-2588

= 앞서가는 수험생들의 선택! "역시" 無等이었다. =

7.9 급 공무원 對備 전문

문제풀이반 4주완성 수시접수	국가+지방직	소수정원반 (영어)10가능직	모험심사 단국대사 박한림교수
= 각 지방직 채용인원 =			
서울903, 부산288, 대구100, 인천383, 광주119	대전105, 울산 86, 경기885, 강원160, 충북162	충남198, 전북 208, 전남 308, 경북 214, 경남 816	
개강		소방직	
매월1일과15일(주·아침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사상최다모집예정	
·서울 300, 부산 82, 대구 94, 인천 277, 광주 92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3	
·충남 188, 전북 120, 전남 280, 경북 128, 경남 110			

www.mdgosi.co.kr 222-4560

***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 전문자격증 준비!! ***

공인중개사 10월 25일 시험

여성 최고의 유망 전문직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장" 전원 서울에서 출강! 광주고시학원

3월 2일 (첫년도 시작반)

직장인 수강료 환급 국비지원 선착순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합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